

도교육청, 학생안전 스마트화 올인

스쿨존 내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학교 1곳 운영
21일까지 희망 학교 신청 접수... 500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

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무선통신장치(비콘)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알림, 통학정보 알림 대응 등 학생안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동의하에 초등학교 학생에

게 무선통신장치(비콘)를 보급하고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접근하면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학생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무선통신장치(비콘)은 노인돌보기, 위급상황 알림, 산악구조, 치매환자 실종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9월 중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몸 튼튼! 마음 튼튼! 드라이브스루 건강캠프'를 진행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컬러푸드 건강 더하기'로 캠프에 참가한 32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은 차에 탑승한 상태로 각 단계별 부스를 돌아다니며 교육을 받았다.

완산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드라이브스루 건강캠프 진행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몸 튼튼! 마음 튼튼! 드라이브스루 건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해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캠프를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캠프를 진행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컬러푸드 건강 더하기로 캠프에 참가한 32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은 차에 탑승한 상태로 각 단계별 부스를 돌아다니며 교육을 받았다. 1단계 부스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천연 빛깔의 5가지 컬러푸드에 대해 배우고, 2단계 부스에서는 컬러푸드 조성퀴즈를 진행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각 가정에서 직접 교육과 체험해볼 수 있는 채소 쿠키 키트를 배부했다.

/정은성 기자



제4회 2020 성평등콘텐츠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승아·박미리 학생이 특선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주대 유승아·박미리 학생 공모전 입상

제4회 성평등콘텐츠대상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유승아·박미리 학생의 작품이 양성평등의식과 가치 확산을 위한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홍보물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제4회 2020 성평등콘텐츠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승아·박미리 학생이 특선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성평등콘텐츠대상 공모전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평등 가치를 담아낸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국민 의식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75건의 콘텐츠가 접수돼 부문별로 10여 개의 우수작을 선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두 학생은 올해 1학기에 진행된 중요한 교수의 인문학기초 수업에서 성평등 관련 강의를 듣고 문제의식과 관심이 생겨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공모전에 참가했다.

유승아 학생은 'HERO와 HERO'라는 주제로 여성의 '쉬(SHE)'와 영웅을 뜻하는 '히어로(Hero)'를 합친 신조어, HERO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상징하는 인포그래픽을 선보이며 청소년부 종합부문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박미리 학생은 '그 임 좀 잡가주세요'라는 주제로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역부문(전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유승아 학생은 "작품을 통해 영웅의 성별마저 고정화된 문화를 꼬집고자 했다"며 "성평등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정책 공정성 높인다

외부전문가 대상 시민감사관 공모... 7~14일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5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의 교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사람 등이다.

시민감사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자기소개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 팩스(220-9406), 이메일(dutwo@jbeu.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총 7명이며 임기는 2020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1년에 두 번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

며 올 상반기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면서 "교육정책의 제도 개선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조리 분야 인재 육성 협약

호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지난 3일 조리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한국조리협회, 수원 한국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희성 총장과 (사)한국조리협회 김광익 대표, 수원 한국직업전문학교 박광희 대표가 참석했다.

(사)한국조리협회는 세계 식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우수한 조리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인이고, 수원 한국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으로 교육,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전문기관이다.

호원대학교는 (사)한국조리협회와 대한민국 국제 조리 경연대회 및 각종 대회의 학생 참여 확대, 연계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및 교육자료의 교환을, 수원 한국직업전문학교와는 식문화 행사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교육 및 교육장 공동 활용 등을 내용으로 각각 협약을 맺었다.

/정은성 기자

전북보조기기센터·예수대 장애학생지원센터 맞손

전북보조기기센터(센터장 신현욱)는 4일 예수대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이정욱)와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신현욱 교수(재활학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찾고 지원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보조기기센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적



합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립됐으며, 보조기기 정보제공, 점검 및 수리 연계 서비스, 단기대여(체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